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기계산업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전국대비 종사자수 비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수도권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금년중 생산 및 수출 실적도 전국에서 가장 부진했다. 생산의 경우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하며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기간 수출도 -11.7%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행히 내년도 기계산업 업황은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회복이 예상되고 중국 등 주요국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금년중 연기되었던 민간부문 투자가 활기를 되찾으며 회복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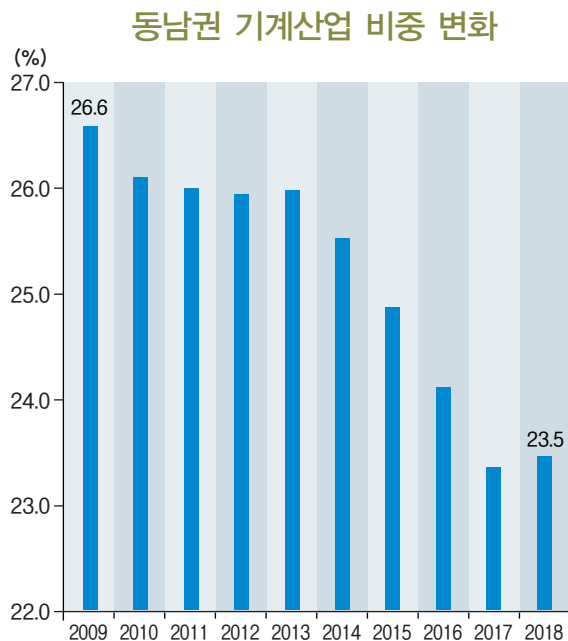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동남권 기계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주형 및 금형, 내연기관, 유압기기 등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로봇, 의료, 항공우주 등 지역의 잠재력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미래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남권 기계산업 위상 하락

동남권 기계산업¹⁾의 전국 대비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동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6.6%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23.5%까지 낮아졌다. 특히 2014년 이후 하락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종사자수 비중이 2009년 16.6%에서 2018년 14.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다음의 전국 2위 기계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와의 격차는 같은기간 16.6%p에서 21.7%p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부산은 2009년 7.5%에서 2018년 6.4%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종사자수 비중 순위가 같은기간 4위에서 5위로 소폭 하락하면서 부산을 대신해 충남이 4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울산의 경우 비중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순위는 2009년 10위에서 2018년 11위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 1) 종사자수 기준
2)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시도별 기계산업 비중 변화 (%)

순위	2009년		2018년	
	시도	비중	시도	비중
1위	경기	33.2	경기	36.1
2위	경남	16.6	경남	14.4
3위	인천	10.5	인천	8.7
4위	부산	7.5	충남	7.1
5위	충남	5.3	부산	6.4
⋮				
10위	울산	2.6	충북	2.8
11위	충북	2.2	울산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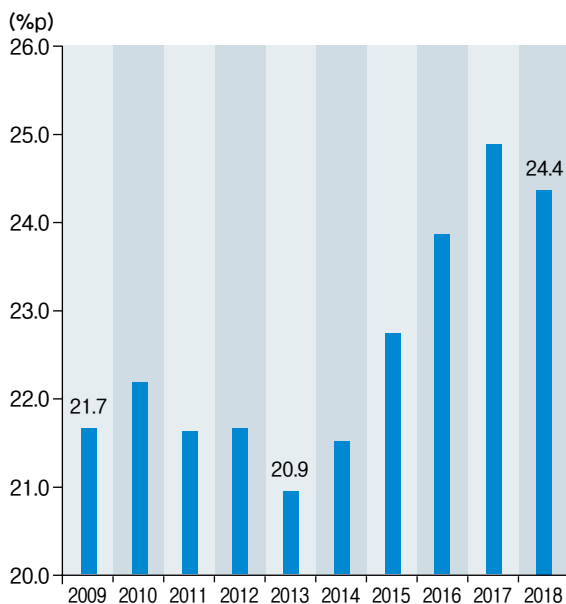
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표준산업분류코드상 C29에 해당하는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임

경제권역별 기계산업 비중은 충청권이 2009~18년중 9.4%에서 11.8%로 2.4%p 상승하며 으뜸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대경권이 9.7%에서 10.6%로 0.9%p 높아졌으며 호남권은 5.2%에서 5.6%로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비중이 크지 않은 가운데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 기계산업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2위 경제권역인 동남권은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2009~13년중 20%p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24.4%p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난 10년간 동남권 기계산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26.6%에서 23.5%로 3.1%p 하락하였으나 사업체수 비중의 경우 23.4%에서 22.7%로 하락폭(0.7%p)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동남권은 기계산업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체당 규모(= 종사자수/사업체수)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

수도권-동남권 기계산업 비중 격차



경제권역별 기계산업 비중 변화

순위	2009년		2018년	
	경제권역	비중	경제권역	비중
1위	수도권	48.3	수도권	47.9
2위	동남권	26.6	동남권	23.5
3위	충청권	9.4	충청권	11.8
4위	대경권	9.7	대경권	10.6
5위	호남권	5.2	호남권	5.6
6위	강원권	0.6	강원권	0.6
7위	제주권	0.1	제주권	0.1

주 : 1) 종사자수 기준
2) 전국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2) 2009~18년중 연평균 종사자수 증가율(2.6%)은 사업체수 증가율(5.2%)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같은기간 사업체당 규모는 12.5명에서 9.9명으로 축소

동남권은 내연기관·유압기기, 수도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위

기계산업 세부품목(세세분류 기준)별로 살펴보면 동남권 및 수도권 모두 주형 및 금형 비중이 각각 12.3%, 17.6%로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탭·밸브 및 유사장치도 동남권 7.7%, 수도권 4.6%의 비중을 차지하며 두 경제권역에서 모두 5대 품목에 포함되었다.

주형 및 금형, 탭·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외하면 동남권과 수도권 주력품목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의 경우 내연기관(9.7%), 유압기기(8.5%),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8.2%) 등이 5대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³⁾. 반면 수도권은 반도체 제조용기계 14.3%, 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 3.7%, 액체여과기가 2.9%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품목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의 5대 세부품목 구성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산은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울산은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와 기타 가공공작기계, 경남은 금속절삭기계 등이 동남권 전체 5대 품목 구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및 수도권 주력산업 비중

(%)

순위	동남권	수도권
1	주형및금형 (12.3)	주형및금형 (17.6)
2	내연기관 (9.7)	반도체 제조용 기계 (14.3)
3	유압기기 (8.5)	탭, 밸브 및 유사장치 (4.6)
4	건설및채광용 기계장비 (8.2)	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 (3.7)
5	탭, 밸브 및 유사장치 (7.7)	액체여과기 (2.9)

지역별 주력품목 현황

(%)

순위	부산	울산	경남
1	주형및금형 (17.3)	내연기관 (28.0)	주형및금형 (10.4)
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14.2)	건설및채광용 기계장비 (14.3)	건설및채광용 기계장비 (10.1)
3	유압기기 (11.3)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12.0)	유압기기 (8.5)
4	내연기관 (7.5)	주형및금형 (10.6)	금속 절삭기계 (7.9)
5	기어및동력 전달장치 (3.3)	기타 가공 공작기계 (5.7)	내연기관 (7.2)

주 : 1) 종사자수 기준(세세분류)

2) 지역내 비중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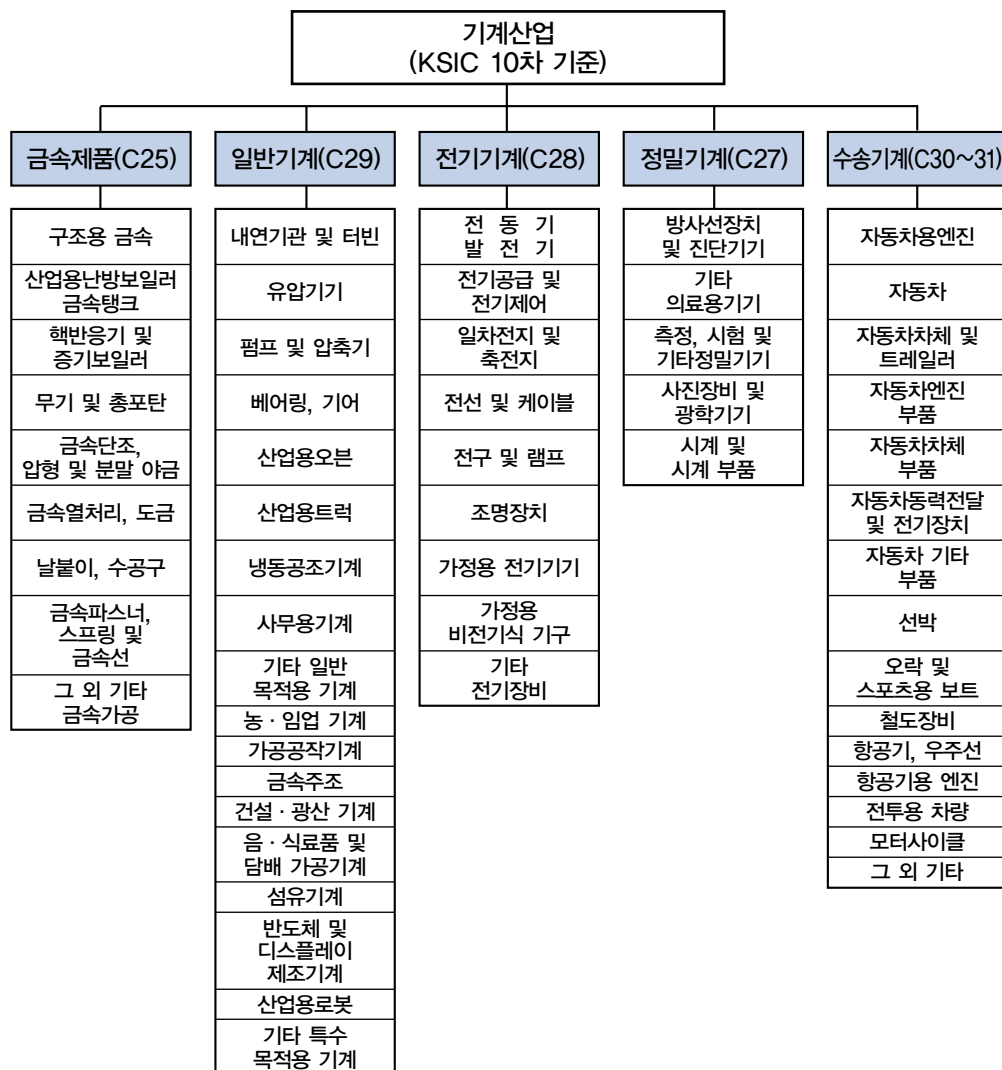
3) 동남권 기계산업의 5대 주력품목 종사자수가 지역 기계산업 45개 품목(세세분류 기준) 전체 종사자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3%에 달하고 있어 지역 기계산업의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참고] 기계산업 분류

■ 기계산업은 일반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등 5대 업종으로 크게 분류

- 5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2017년)의 금속가공제품(C25), 기타기계및장비(C29), 전기장비(C28),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C27), 자동차및트레일러(C30), 기타운송장비(C31)에 해당

※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기계산업인 일반기계(C29, 기타기계및장비)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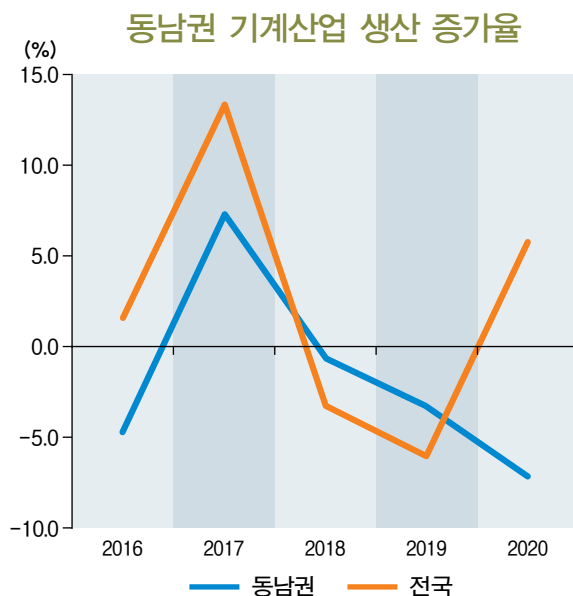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동남권 기계산업, 최근 3년간 생산 감소폭 확대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은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7.0%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2018년 -0.5%, 2019년 -3.2%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하며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같은기간 전국(5.9%)은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23.0%), 충청권(11.0%), 호남권(4.9%)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⁴⁾. 특히 2016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제조업 전반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생산이 금년 1~9월중 -12.3% 줄어들며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울산도 -3.5%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부산의 경우 5.7%의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0년은 1~9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2016년	-5.3	-4.7	-4.2
2017년	6.9	3.6	8.8
2018년	4.1	-10.7	0.5
2019년	6.1	-5.0	-6.1
2020년	5.7	-3.5	-12.3

4) 2020년 1~9월중 경제권역별 기계산업 전년동기대비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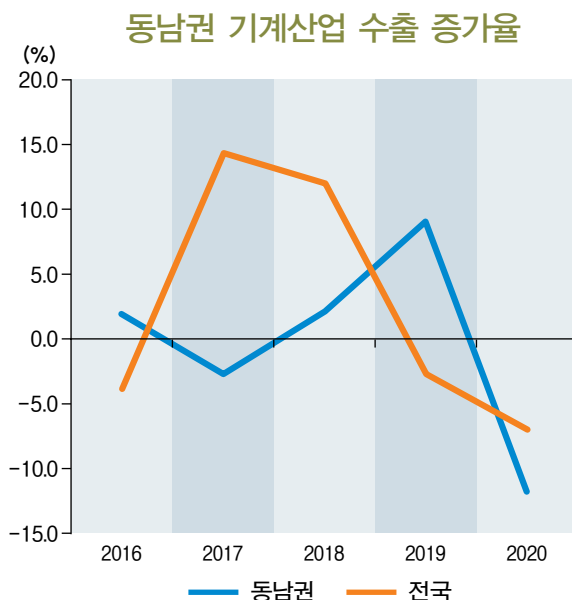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23.0	11.0	4.9	-6.8	-7.0

수출도 금년들어 큰 폭으로 감소

동남권 기계산업 수출⁵⁾은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한 1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같은기간 전국은 -6.9% 감소한 420억 7천만달러의 실적을 시현했다. 동남권 수출 하락폭은 전국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권역별로는 대경권이 전년동기대비 -8.7% 감소한 43억 6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동남권 다음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은 같은기간 -4.9% 감소한 198억 5천만 달러, 충청권은 -3.6% 줄어든 53억 7천만달러를 수출실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호남권은 0.8% 증가한 14억 1천만달러를 기록했다⁶⁾.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년동기대비 -23.4% 감소한 17억 1천만달러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부산은 -12.3% 줄어든 16억 2천만달러, 경남은 -8.5% 감소한 76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동남권 전지역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계산업 수출 증가율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2016년	-7.8	5.0	3.6
2017년	0.5	-37.2	9.8
2018년	2.5	-12.4	5.4
2019년	-1.0	47.7	4.5
2020년	-12.3	-23.4	-8.5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0년은 1~9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5) 수출금액은 MTI 기준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공구및금형), 79(기타기계류), 732(반도체제조용장비), 736(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장비) 합계

6) 2020년 1~9월중 경제권역별 기계산업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4.9	-3.6	0.8	-8.7	-11.7

전방산업의 차별적 업황으로 주력품목 실적 상이

금년 1~8월중 세부품목별 생산 동향(전국기준)을 살펴보면 동남권과 수도권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주형 및 금형, 탭·밸브 및 유사장치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8%,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품목의 수출도 -7.4%, -14.8%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동남권 주력품목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 및 금형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내연기관의 경우 생산은 소폭 증가(8.2%) 했으나 수출이 감소(-9.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광산기계, 유압기기 등의 생산과 수출은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46.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금년중 힘든 교역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11.4%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업황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

(%)

주요품목	증가율
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46.8
내연기관	8.2
탭,밸브및유사장치	-1.9
주형및금형	-3.8
건설광산기계	-21.5
유압기기	-25.3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

주요품목	증가율
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11.4
주형및금형	-7.4
내연기관	-9.2
유압기기	-14.7
탭,밸브및유사장치	-14.8
건설광산기계	-24.3

주 : 1) 금년 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전국기준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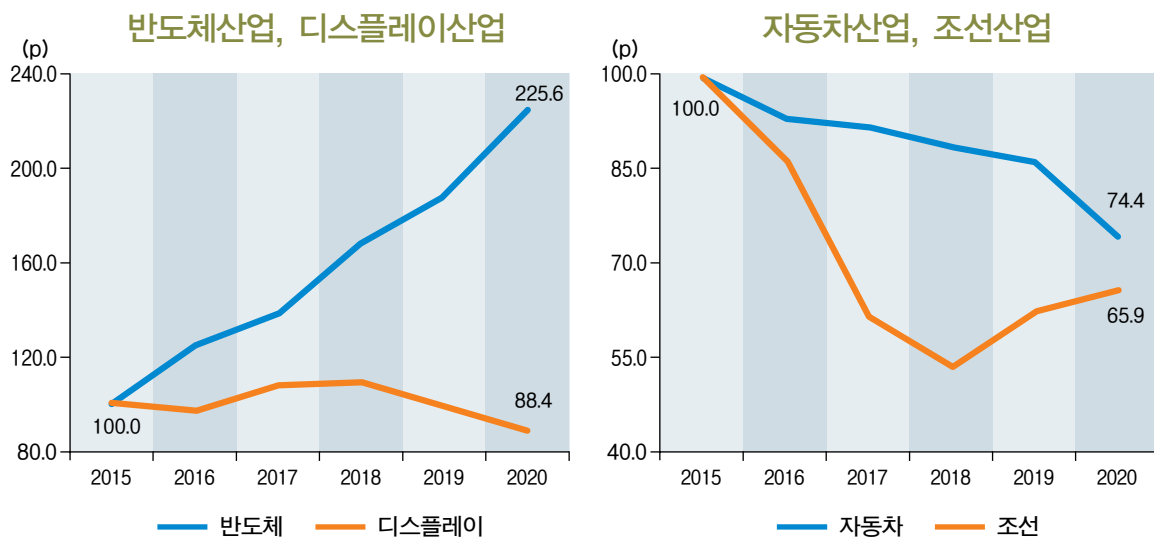
이와같은 동남권 기계산업의 부진은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 제조업황 악화에 주로 기인한다. 이들 전방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생산수준이 크게 낮아져 있다.

특히 금년에는 대외여건 악화로 자동차 산업이 -12.2%의 생산 감소율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업도 -1.5% 감소하면서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1~9월중 평균 생산지수는 자동차는 74.4p, 조선은 65.9p로 2015년 생산수준(100p)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이 높은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며 수도권 기계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생산은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반도체 평균 생산지수는 225.6p까지 상승하며 2015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대내외 수요부진으로 소폭 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산업 주요 전방산업 생산지수 추이



주 : 1) 전국 제조업 소분류 기준

2) 2020년은 1~9월 평균

자료 : 통계청

기계산업 업황 개선흐름 기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남권 기계산업 위상 제고 노력이 중요

금년중 동남권 기계산업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역 주력산업 업황 악화로 내수가 위축되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수출도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이에따라 기업실적도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상장기업중 적자기업 비중은 2019년 38.5%까지 상승했으며 금년중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도 지난해 수준(42.3%)을 상회할 수 있다⁷⁾. 따라서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행히 내년도 기계산업 업황은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수출 반등, 조선 생산 확대 등 전방산업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등 주요국 투자확대로 건설광산기계, 공작기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금년중 연기되었던 민간부문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업황 회복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남권 기계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주형 및 금형, 내연기관, 유압기기 등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용 로봇기기, 의료용 기기, 항공우주 기기 등 지역의 잠재력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7) 동남권 상장기업(26개사 기준) 적자기업 및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추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적자기업 비중	19.2	30.8	38.5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26.9	38.5	42.3

[참고문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통계월보”, 2020.10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 2019년 성과와 2020년 전망”, 2020.01

한국산업연구원, “코로나19가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20.04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08

통계청, www.kosis.kr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6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Big | 더 큰 믿음으로

B



지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 Network

N



Knowhow | 시대를 리드하는 금융 노하우로

K



희망을 있다
행복이 있다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 BNK금융그룹

BNK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벤처투자 BNK생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10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z.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10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